

고규홍의 '나무생각'



생명을 건 목련의 모험

※ 이 칼럼은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을 받았습니다.

하얀 목련 꽃 그윽하게 벌어진 틈으로 꽃샘추위가 들이닥치고, 난데없이 모진 비바람까지 매섭게 다가왔다. 그렇잖아도 빠른 낙하가 아쉬운 목련 꽃이거늘, 비바람 못 이기고 속절없이 떨어질까 안타할 수밖에 없는 봄날이 사납게 지나간다.

이여지기 때문에 봄 내내 다양한 종류의 목련 꽃을 볼 수 있다. 봄을 목련의 계절이라 부르고 싶어지는 이유다. 여러 종류의 목련 중에 으뜸은 아무래도 순백의 목련이지 싶다. 이른 봄, 잎 나기 전에 소담한 꽃송이를 피워 내는 하얀 목련의 고아한 아름다움은 목련 종류의 꽃 가운데 으뜸이다. 초록의 잎사귀와 함께 피어나는 자목련이나 황목련 종류의 꽃은 화려함에서 다른 목련을 능가한다.

크게 나누면 흰색 꽃을 피우는 백목련 종류와 붉은 꽃의 자목련 종류가 있으며, 흔하지는 않지만 자목련이나 식물원에서 볼 수 있는 노란색 꽃을 피우는 황목련 종류가 있다. 그밖에 꽃 한 송이에 12장에서 40여 장의 꽃잎을 가지는 별목련 종류도 있다.

그러나 한 장의 잎도 없이 꽃을 피우는 목련은 그 순간 자신의 몸 안에 간직하고 있던 모든 에너지를 꽃송이에 쏟아부어 야한다. 절체절명의 순간이다. 처음 꽃송이를 밀어 올린 지난해 늦은 봄부터 애연 글면 기다려 온 절정의 순간이다. 꽃 한 송이를 세상에 내보내기 위해 몸 어딘가에 남아 있을 양분을 소진하고 생명을 마칠 수도 있다. 광합성을 할 수 있는 잎이 없기에 소진된 에너지를 충전할 방법이

에 들어온다.

잎 없이 하얀 꽃송이만 피워 올리기 때문에 더 우아하고 아름답다고 하지만, 나무의 입장에서 잎 없이 꽃을 피우는 건 대단한 모험이다. 아예 생명을 통째로 내놓는 모험이다. 자칫하면 목숨까지 잃을 수 있는 엄청난 일이다.

모든 생명에게 가장 많은 에너지가 필요한 활동은 자손을 번식시키는 일이다. 식물에게도 꽃 피우고 열매 맺는 일이다. 꽃 피우는 순간에 식물은 일생 최대의 에너지를 사용해야 한다. 그 에너지를 식물은 스스로 만든다. 태양의 빛을 받아들이고, 뿌리에서 물을 끌어올린 뒤 공기 중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해 에너지를 만드는 광합성이 바로 그것이다.

물론 잎보다 먼저 피어나는 꽃이 목련만 있는 건 아니다. 이른 봄에 피어나는 대개의 꽃이 그렇다. 산수유가 그렇고, 개나리도 그러하며 빛나무 역시 잎보다 꽃을 먼저 피운다. 하지만 같은 방식으로 피어나는 여느 꽃들에 비해 목련은 꽃송이가 탐스럽고 화려한 까닭에 유난스레 눈

없다.

이처럼 잎 없이 화려한 꽃을 피우는 백목련 종류의 꽃이 유난히 아름다워 보이는 건, 생명을 건 모험이 처연하게 이뤄내는 꽃이기 때문일지 모르다. 생명을 잃을지 모르는 위기를 무릅쓰고도 생명을 이어 가려는 절박함이 꽃송이에 담겼다는 이야기다.

그때 벌써 일억사천 번이나 계속된 목련의 일생이다. 목련이 이 땅에 처음 꽃 피운 일억사천 년 전의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거스르지 않은 목련의 안타까운 운명이다. 그야말로 삶과 죽음의 경계를 넘나들며 긴 세월 동안 이어 온 생명을 건 모험이다. 그동안 목련은 해마다 봄이면 이처럼 처절한 생명 활동을 한 번도 거르지 않았다.

한 송이 꽃이 아름다운 건,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내건 결단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세상의 모든 생명이 아름다운 건 자신에게 주어진 소명을 다하기 위해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내거는 순간일 수밖에 없다. 불수록 아름다운 목련 꽃 한 송이에 담긴 생명의 진리를 세심 되짚어 보게 되는 봄, 목련의 계절이다.

〈나무 칼럼니스트〉

의료칼럼

영화 속 눈(眼) 이야기



박진우 보라안과병원 원장

화 속에는 눈에 관련된 이야기가 많이 있다. 오늘날 세 편의 영화를 소개하면서 눈(眼) 이야기도 함께 해볼까 한다.

첫 번째 영화는 아더라이프(Otherlife)라는 넷플릭스 오리지널 영화로 특수 개발한 안약을 통해 기억과 경험, 그 이상의 것을 느끼게 만드는 SF 영화다. 요즘 화두인 VR(가상 현실)의 미래 모습을 보여 주는 것이 아닌가 싶다. 일회용 안약처럼 생긴 특수 약물을 점안하여 머릿속에서 꿈을 꾸듯 가상 체험을 하는 아이디어는 굉장히 참신하다. 영화를 보면서 직업병적으로 잘못된 안약 사용법이 눈에 거슬렀다. 올바른 안약 사용 방법은 손을 깨끗이 씻고 눈을 위로 보고 아래 눈꺼풀을 손으로 약간 내린 후, 검은 동자와 아래 눈꺼풀 사이 공간에 한 방울만 떨어뜨리고는 약물을 30초 정도 눌러주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이다. 안약은 눈뿐만 아니라 전신 흡수도 가능하므로 올바른 안약 사용법은 중요하다.

두 번째 영화는 아이 오리진스(I origins). 'I'와 'eye'가 비슷한 발음이고, 눈

이 곧 그 사람을 나타낸다는 철학이 담긴 미국 영화이다. 현재 빠르게 자리잡고 있는 총체 기술에 환생이라는 불교적 세계관을 가미한 약간의 몽환적인 SF 영화다. 눈 중에서도 특히 눈동자, 안과 용어용 홍채는 다양한 혈관과 색채 등을 가지고 있어 지문보다 훨씬 안전한 생체 암호에 사용될 수 있고, 눈빛이나 인상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된다. 그래서 최근에는 컬러렌즈를 사용하여 눈 화장술이 극대화되기도 하는데, 이러한 렌즈들은 두껍고 커서 장기간 오래 사용하면 각막 염증이거나 안 좋은 혈관을 만들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하고 너무 어린 학생들이 사용하면 눈 발달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부모님의 관심이 필요하다.

세 번째 영화는 '토르 : 라그나로크'라는 마블의 블록버스터 영화이다. 누나이자 죽음의 여신인 헬라와 맞서 세상의 종말, 라그나로크를 막는 찬동의 신 이야기이다. 영화에서 토르는 한쪽 눈을 잃는다. 애틋한 하인 피터팬의 후크선장, 후고구려를 세운 공예, 부모님이 주신 것을 버릴

수 없다며 자기 눈을 먹었다는 삼국지의 하우돈 등 많이 있는데 이것은 고칠 수 없는 병으로 생각되고 있다. 하지만 토르는 다음 마블영화 '인피니티워'에서 눈을 다시 찾을 수 있다고 한다.

어떻게 보면 안과 의사로서 이런 미래 기술은 궁극의 목표가 아닐까 한다. 현재도 인공 망막을 이용한 실명 환자 실명에 색을 구분했다는 논문이 발표되고 있다. 하지만 아직은 먼 미래의 일처럼 느껴지므로 우리는 눈 건강에 신경을 써야 한다. 스마트폰이나 PC는 40분 사용 후 5분 정도 쉬어주거나 장 밖 먼 거리의 풍경을 바라보며 조절을 풀어주고, 루테인이나 황산과 비타민 복용도 도움이 되며 미세 먼지만큼 눈 건강에 위험한 자외선을 막기 위해 선글라스 사용도 필요하다. 만 40세 이상이 되면 매년 주기적으로 안과 검진을 받아 보는 것도 무척 중요하다.

나는 영화를 좋아하고 '시네마 천국' 같은 영화를 보고 카타르시스를 느낀다. 앞으로 더 좋은 영화를 보고 즐기길 위해서는 나부터 눈 건강에 신경을 써야겠다.

社說

민주 광주시장 경선, TV토론회 더 늘려야

더불어민주당 광주시장과 전남 지사 경선이 '깜깜이 선거'로 흐를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경선 기간이 짧은 데다 TV 토론회도 한 차례만 형식적으로 열려 유권자들이 후보들의 정책과 역량을 제대로 검증할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내일부터 15일까지 사흘간 전남지사 후보 선출을 위한 1차 경선에 돌입한다. 지난 2일 김영록·신정훈·장만채(이상 가나다 순) 예비후보 3명을 경선 후보로 확정된 지 11일 만이다. 이처럼 경선 기간이 짧은데도 후보 간 상호 검증은 위한 당내 토론회는 없고 TV 토론회만 단 한 차례 열린다. 그러나 한 차례 열리는 TV 토론회도 1차 경선 시작 전날(오늘 밤 11시 10분)로 일정이 잡혀 있어 형식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경선 후보들이 출마를 선언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22개 시·군·구에 담긴 생명의 진리를 세심 되짚어 보게 되는 봄, 목련의 계절이다.

가난 때문에 죽음에 내몰리는 일 없도록

얼마 전 남편과 사별한 후 빚 독촉에 시달리던 40대 여성이 딸과 함께 숨진 채 발견된 '중평 사건'의 충격이 채 가시지 않은 가운데, 광주·전남 지역에서 해마다 목숨을 끊는 기초생활수급자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기에 처한 소외계층이 생각보다 훨씬 많은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김상훈 의원이 최근 발표한 '2012~2017 기초생활수급자 자살 현황'에 따르면 기초생활수급자 가운데 자살자는 지난 2012년 267명에서 지난해 335명으로 68명(26%)이 증가했으며 2012년 이후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는 모두 1763명이었다. 같은 기간 광주 58명, 전남은 15명 등 총 73명이 죽음에 내몰렸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광주의 경우 2012년부터 2015년 사이에 매년 7명~11명이 세상을 등졌으나 2016년 21명, 2017년 17명 등으로 늘어 모두 58명에

달했다. 전남에서는 이 기간 동안 15명이 목숨을 끊었다. 연령별로 보면 광주는 20~29세가 4명, 30~39세 7명, 40~49세 15명, 50~59세 21명, 60~69세 11명, 70세 이상 13명이었다. 전남에서도 50~59세 4명, 60~69세 5명, 70세 이상 5명 등으로 노인들의 죽음이 많았다.

기초생활수급자들의 자살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복지의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가 2015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개정해 수급자 선정 완화 등 복지 지원시스템을 마련했지만 아직도 사회 안전망이 촘촘하지 못하다는 얘기다.

정부와 지자체는 지금이라도 제도 전반을 점검하고 사회적 병리현상이 심각해지기 전에 현실적인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더 이상 가난 때문에 죽음에 내몰리는 비극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無等鼓

예전에 광주 양림동은 죽은 어린이 이를 풍장(風葬)하던 곳이었다. 조선시대의 풍습이었는데, 이로 인해 까마귀와 여우가 많이 서식하면서 아주 오싹한 동네였다고 한다. 지리적으로는 광주의 중심인 광주읍성을 둘러싼 읍사방, 즉 기레방·공수방·부동방·두방 가운데 부동방에 해당했다. 방(坊)은 고려·조선시대의 행정구역이다.

울창한 양림동 숲에 사람이 복적이 개된 것은 20세기 초, 미국인 선교사들이 찾아오면서부터다. 1897년 10월 1일 목포가 개항하자 두 부류의 외국인들이 광

할 주택을 신축하면서 이들은 서양식 주거 단지를 완성했다. 주로 조선인을 위한 시설이었는데, 사리사욕을 위해 광주를 찾은 일본인과는 목적 자체가 달랐다.

일제의 탐입과 착취에 억압받던 조선인들은 양림동에서는 조금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었다. 그곳에서만은 한 병이나 경찰의 눈치를 안 보며 당당하게 어깨를 펴고 걸었다는 전언이다. 정을 개된 것은 20세기 초, 미국인 선교사들이 찾아오면서부터다.

양림동

지식인들이 양림동에 기거한 것은 우연이 아니었던 것이다. 양림동은 새로운 문물

을 광주에 전파하는 창구이기도 했다. 강연회, 문학행사, 공연 등이 수시로 열렸다. 일제는 진입도로에 경찰을 배치해 군중을 해산하는 데 급급했다. 최근 양림동이 광주의 대표 관광지로 각광을 받고 있다. 그중 아파트에 둘러싸이고 오가는 차들이 방해하기는 하지만, 광주에서 그나마 근대 문화를 살펴볼 수 있는 장소이기 때문이다. 양림동의 가치를 뒤늦게 발견해 냈듯이, 목전의 이익을 위해 역사를 지워 버리는 우는 더 이상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윤현성 정치부 부장chad@

기 고

'어촌 뉴딜 300'으로 안전한 섬 여행을



이재영 전남지사 권한대행

일반인은 10.6% 증가했다. 최근 3년간 평균 증가율 또한 일반인 7.1%, 섬 주민 1.8%로 일반인 증가율이 거의 4배에 육박한다.

전남도는 이같은 이용객 증가 요인으로 지난 2015년부터 브랜드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가고 싶은 섬'의 성과로 분석하고 있다. 여객선을 이용해 전남 섬을 방문한 여행객이 크게 늘었다는 것이다.

전국에는 3355개의 섬이 있다. 이 중 유인도는 470개, 무인도는 2885개다. 전체 섬 가운데 65%에 달하는 2165개가 전남에 있으며, 유인도는 전국의 59%인 276개다.

섬은 독특한 문화와 자연 자원, 힐링과 휴식이라는 관광 트렌드 변화에 따라 새로운 여행지로 주목을 받고 있다. 도시 사람들은 지치고 힘들때 어디 조용한 섬에 들어가서 며칠 폭 쉬고 싶다고들 한다. 아예 섬에 들어가 노후를 보낼 것을 꿈꾸는 은퇴 예정자도 늘어나고 있다.

전남도는 섬에 대한 관심과 방문객 증가에 힘입어 2015년부터 10년 동안 960억 원을 들여 24개 섬을 개발할 계획이 다. 지난해까지 10개 섬을 선정해 개발

중이며, 오는 2024년까지 매년 2개 섬을 선정해 1개 섬당 1년에 8억 원씩 40억 원을 투입한다.

이 사업은 공동화 되어가는 섬을 '주민은 살고 싶고, 관광객은 가고 싶은' 생태 여행지로 바꾸는 주민 주도형으로 관광객을 맞이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개발한다.

2015년에 개발한 6개 섬 방문객 현황을 보면 2014년 27만명에 불과한 방문객이 지난해 107만명으로 급증했다. 4년 새 3배(295%) 가까이 증가한 것이다. 앞으로 개발되는 섬이 늘어날수록 방문객도 늘어날 것이다.

그러나 섬 관광객 1000만 시대를 넘어 지속 성장하기 위해서는 섬을 찾아가 수 있는 교통 수단인 여객선이 안전하게 드나들어야 한다.

전남에는 31개 섬에서 93척의 여객선을 운항 중이다. 이는 전국 169척의 55%를 차지한다. 차도선이 70척으로 가장 많고, 초쾌속선 10척, 카페리 5척, 일반선 5척, 쾌속선 3척 등이다. 이들 선박은 전남 276개 유인도 중 191개 섬을 운항한다. 연·연륙이 된 37개 섬과 17개 섬은 육지와 인접해 운항하지 않는다. 나머지 31개

섬은 인구가 20인 미만이다. 여객선이 다닌지 않는 섬은 대부분 주민이 소수한 여객선을 이용하고 있다.

이들 지역은 관광객이 방문하기 힘든 곳이다. 접근 시설도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다. 목포항에서 거제도 운항하는 여객선의 경우 기항지인 다물도와 만재도, 상·중태도는 접근이 어려워 10t 미만의 종선(여객을 중개 수송하는 선박)을 이용하고 있다. 항상 안전 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는 것이다.

이같은 여객선 기항지인 소규모 항포구는 시장·군수가 관리하기 때문에 시·군의 적은 예산으로 여객선 접근 시설을 구축하기에는 역부족이다. 국비 지원이 절실하다.

최근 이러한 소규모 항포구의 접근 시설을 확충할 수 있는 희소식이 전해졌다. '어촌 뉴딜 300'이다. 소규모 어항·포구 300곳을 선정해 시설 현대화 등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국가 균형 발전을 실현하겠다는 해양수산부 프로젝트다. 전남도는 여객선 기항지 접근 시설 확충을 앞당겨 섬이 주민은 물론 관광객들로 북적이는 그런 시절이 올 것으로 기대한다.

독자투고·기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세요.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광주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54 /팩스 062-222-4918 /e메일 opinion@kwangju.co.kr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김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金日煥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일간) 우편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경제부 220-0663 (대표 FAX 222-4918) (FAX 222-4938)
기획관리국 227-9600 업무국 220-0551 (FAX 227-9500) (FAX 222-0195)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8005) (FAX 222-0195)
정치부 220-0632 문화미디어부 220-0664 (FAX 227-9500) (FAX 222-0195)
사회부 220-0642 체육부 220-0697 (FAX 02-773-9331)
사회부 220-0652 사진부 220-0693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